

JY 경영복귀 후 첫 인수합병 관심... 시선 쏠리는 NXP

(이재용 부회장)

**커넥티드 카, 빠른 속도로 발전
전장분야 특화로 매력적인 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 후 첫 인수합병(M&A)에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전문기업 엔엑스피(NXP)가 거론되고 있어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 부품사업(전장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하만(HARMAN)을 지난해 3월 약 8조원에 사들였지만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이렇다 할 추진력을 못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에 대해 개방성으로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자율주행차 등 커넥티드 카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장부품 사업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M&A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엔엑스피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증권 업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엑스피의 최대주인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에 웰컴이 인수를 진행 중인 엔엑스피에 대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취지의 레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바일 통신, 블루투스 반도체 분야 1위인 웰컴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엔엑스피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업체(파운더리)인 엔엑스피는 60년 전 필립스의 반도체 자회사로 시작해 2015년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 1위 업체로 자리 잡았다. 매출의 30% 이상을 자동차용 칩에서 거둘 만큼이 분야의 강자로 꼽힌다.

그러나 웰컴의 엔엑스피 인수는 반독점 규제 닷에 장기간 표류 중이다.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은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싱가포르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웰컴에 대해 적대적 인수에 나서면서 엔엑스피 인수는 다시 혼전양산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엇의 제안이 나오면서 세계가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엔엑스피 M&A를 검토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엔엑스피 인수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엔엑스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파르게 상승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 규모는 2016년 569억달러(61조4500억원)에서 2022년 766억달러(82조73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된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엔엑스피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여기에 엔엑스피는 삼성전자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장분야에 특화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만을 인수했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 이렇다 할 시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열린 CES 2018에서 삼성전자

는 하만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을 선보이며 '개방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를 결과로 이끌어내 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당시 전장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엔엑스피 인수는 관련 분야 한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M&A가 활발하다. 자체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모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걸리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웰컴이 엔엑스피를 인수하려던 2016년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전장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엔엑스피 인수는 삼성전자가 관심 가져볼만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삼성전자, 두바이에서 초대형 갤럭시 S9 광고 선봬

삼성전자가 2일(현지시간)부터 아랍 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에서 초대형 ‘갤럭시S9’·‘갤럭시S9플러스(+)’ 출시 광고를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이번 ‘갤럭시S9·갤럭시S9플러스’ 광고는 부르즈 칼리파 외벽에 설치된 LED 파사드를 통해 이틀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삼성전자

LG전자, 가성비甲 스마트폰 ‘LG X4’ 출시

LG전자가 ‘LG X4’로 실속형 스마트폰을 찾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LG전자는 3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중저가형 스마트폰 ‘LG X4’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출고가는 29만7000원으로 20만 원대 가격에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담아 가성비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LG X4’는 LG전자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LG 페이를 적용했다. 스마트폰에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된다. 최근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온라인 결제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편의성을 한 층 강화했다.

후면의 지문 인식 버튼으로 셀카를 찍거나 화면에 캡처가 가능한 ‘핑거 터치’도 편리하다. 셀카를 찍을 때 후면 흠 버튼에 가볍게 한 번 갖다 대면 바로 촬영이 가능



하고 두 번 터치하면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된다.

이어폰을 끊으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고도 고화질(HD) DMB TV를 보거나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데이터가 송수신되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데이터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고객들에게 제격이다.

한 손에 쑥 들어오는 뛰어난 그립감과 깔끔한 디자인도 자랑한다.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148.6×75.1×8.6mm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실 무근’

당시 성장 따라 계열사 매출 증가

“판매물량 따라 다스 물량도 늘어”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다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현대차 760만 달러 다스 소송비 대납’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다스 소송비 760만 달리를 대납했으며, 검찰이 관련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 했다. 또한 현대차가 다스에 계열사를 넘기려 했다가 무산됐으며, 일감을 몰아줘 매출이 급성장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면 대가로 진행된 것이며 이는 다스가 MB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며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스의 연 매출액이 2004년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2013년에는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단순히 한 회사(다스)에만 국한 되지 않았다. 당시 현대차그룹의 실적 성장에 따라 모든 계열사들의 매출액도 증가했다.

실제 현대차는 2006년 매출액 27조 3354억원, 영업이익 1조2344억원, 당기 순이익 1조5261억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해외공장의 실적까지 포함하면 전체 매출액은 37조236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5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0.2%, 영업이익은 10.8%, 당기순이익은 35.0%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 선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7년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2007년 매출액 30조4891억원(내수 12조9268억원, 수출 17조 5623억원), 영업이익 1조 8150억원, 당기순이익 1조6824억원으로, 창사 40년 아래 최대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덕분에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계열사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모비스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대·기아차의 판매 성장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매출액은 2007년 8조4909억원을 기록한 후 매년 10~30% 성장했다. 2011년에는 15조8862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87% 급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해 국내·해외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스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현대·기아차 동차의 전세계 물량이 급격히 신장되던 시기이며, 판매물량의 증가에 따라 다스의 물량도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스 외에 많은 현대자동차의 협력회사가 그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토탈, 석화기업 최초 방폭 스마트폰 도입

배터리 폭발 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

한화토탈이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공정지역 내 방폭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방폭 스마트폰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토탈은 방폭 스마트폰 350대를 근무자들에게 지급하고 사용 안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정된 휴게시설, 사무실 등 안전지역을 제외한 대산공장 내 모든 공정지역에서 일반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회사에서 PDA 등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바일 전자기기를 도입한 적은 있었으나, 한화토탈처럼 대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근무자들이 공정지역 안전을 위해 도입된 무선통신망 기반 방폭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토탈

공장 내 구축된 무선통신망(P-LTE)을 기반으로 방폭스마트폰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 석화기업 중 첫 사례다.

/구서윤 기자